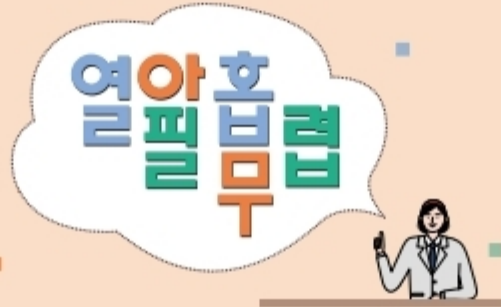


열아홉살의 열아홉살

인문학 여행 "열아홉, 길 위의 꿈"



인문학 여행 "열아홉, 길 위의 꿈..."



인문학 여행 "열아홉, 길 위의 꿈..."

🔊 프로그램 개요

- ① 프로그램명 : '열아홉, 길 위의 꿈'
- ② 목적 : '인문학'을 주제로 한 여행을 통해서 부담 없이 인문학을 배우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③ 대상 : 관내 만 17~18세 청소년(고등학교 2~3학년) 30명
- ④ 일정 : 1박2일 인문학여행



1일차

용인시청 소년수련관

↓
해피초원목장

↓
소양강스카이워크

2일차

김유정문학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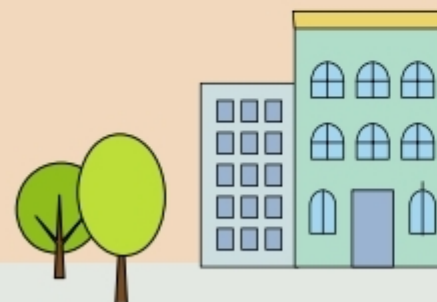
↓
김유정역

↓
김유정역 구역사

↓
애니메이션박물관

↓
용인시청 소년수련관

- 05 **하나**
열아홉, 길 위의 꿈 이야기
삼행시 버킷리스트
- 15 **두울**
열아홉, 길 위의 꿈 이야기
'시'
- 23 **셋**
2020 목표세우기
- 29 **넷**
캠프 이야기
- 39 **마지막 이야기...**
다음 2기 멤버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





하나

열아홉, 길 위의 꿈 이야기 삼행시 버킷리스트

삼행시
버킷리스트



이행 · 삼행시



여 행이란
행 복한 시간으로 안 좋았던 기억들
을 지워버리는 지우개이다.

여 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찰~!각~!!
행 복했던 시간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강 가에 다 다라서
하 늘을 올려다 보며 바란다.
늘 이랬으면.. 좋겠다.

하 루 하루를 뿌듯하게 보내자!
상 상력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우 리 인생을 밝게 만들어보자~

박 수를 받으면서
선 하고 밝은 영향을 줄
우 리는 꽃다운 스무살이다!

여 행을 가려면!
행 동을 해야 한다.~



이행 · 삼행시

여 행을 다녀왔다.
행 복했다.

김 유정역을 갔다 가기전부터
유 명한 곳이라고 들었다
정 말볼것이 많은 장소였다

정 이 많은 춘천
영 원했으면 좋겠다.
표 현으로 안되게 좋으니까

춘 천 닭갈비는
천 국을 가게한다.

버킷리스트

서원제

중학생으로 돌아가기
혼자 차타고 여행지 돌아다니며 힐링하기
여행을 자주해서 마음을 다잡기

박선우

복권사기
일본여행(도쿄)가기
군대 건강하게 다녀오기

정영표

자산 10억 이상 모으기
예쁜여자랑 결혼하기
나 안답고 예쁜여자 닮은 딸 낳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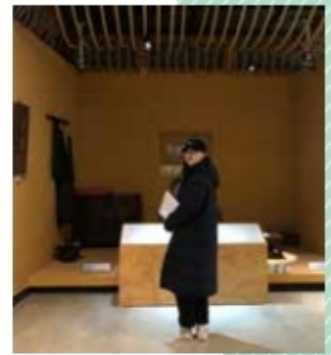
최운식

돈 많이 벌기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기
하와이 가기

하상우

내 차 타고 여행가기
성공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친구들이랑 미국가기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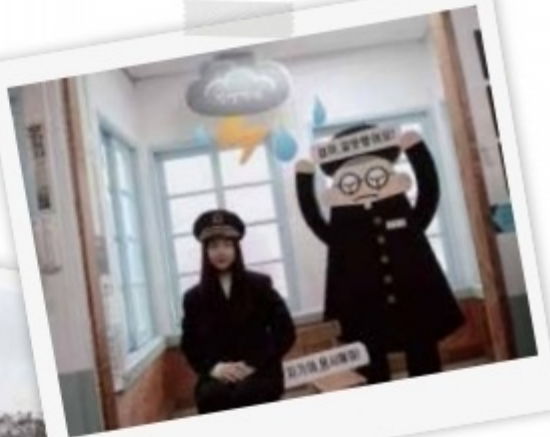
열아홉, 길 위의 꿈 이야기 '시'

열아홉, 길 위의 꿈 이야기
'시'

춘천

손문규

처음가는 춘천
처음보는 문화
처음느낀 기분
모든게 새롭게 느껴졌고
모든게 새롭게 다가왔다.



춘천시

조무현

춘천시의 동물은 호랑이다.
어흥~~~~~
춘천시의 나무는 은행나무다.
어흥~~~~~ (냄새!)



춘천

은종민

춘천을 갔다
많이 추웠다
정말 추웠다
진짜 추웠다
춥다



사진

이효원

네가 문제인건지
내가 문제인건지
폰이 문제인건지

못생겼다



기차

김민수

잠이 깨지 않은 이른 새벽,
외로운 여행길에 오른다.

기차길을 걷는 기차는
떠나는 길 외롭지 않게
설 틈 없이 울어댄다.



시흥주

나의 열아홉은 좌절과
우울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열아홉은
희망과 순수함으로
뒤덮인 것 같아서
덤달아 나의 영혼도
말아지는 기분이었다.



익어가는 춘천

김주형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춘천이 깊을수록
우리도 깊어가네

깊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명상

춘천엔
너도 너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셋

2020 목표세우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말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서원제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며
매사에 진중하고, 신중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하여 아무 문제없이 생활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이 되어 회사 자리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부장님을 챙기며 부장님과 친해지고
동료들과 우정을 다잡아 회사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무현

항상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

성인이 되면 좀 더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

시흥주

2020년에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직설적인 나의 성격과
말투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다.
나의 직설적임은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주로
비롯되곤 한다. 솔직한 말이 아니라 남에게 나의
기준을 강요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남을 배려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김주형

여태까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확실했지만
대학과를 대학을 정하는 시점이어서
그런저고 고민이 된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종민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동현

2020년에는 2021 내가 돌아왔을 때
“후회없이 살았구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되게 살고 싶습니다.

최윤식

취업해서 돈 벌기

정영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정받는 사람

정영표

돈을 많이 모아서 기부하고 싶당





넷

캠프 이야기

1일차, 2일차

캠프 느낌점



손문규

가서 처음으로 먹은 막국수는 내가 알던 막국수가 아니었지만, 같이 먹은 수육과 전들이 맛있었고 해피초원목장은 비가 온 뒤에 가서 신발이 흠범벅이 되었지만 한우버거를 만들어 먹고 재밌는걸 봐서 기분이 좋았다. 저녁에 먹은 바비큐 파티는 정말 재밌었고 배부르게 잘 먹었다.

둘째날 김유정 박물관에는 신기한 것이 많았고 기차 안에서 듣는 강의는 더 분위기 있고 재밌었다. 춘천 닭갈비는 다른데서 먹는 것이라 다른 점을 찾긴 힘들었지만 맛있었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는 재밌는 체험과 즐거운 것들을 보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도 쌓았다.



강하늘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느라 너무 재밌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쏟아지는 장난과 행동에 가끔은 제지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첫 날 먹었던 막국수는 나의 입맛과 썩 맞지는 않았지만 숙소에서 먹은 고기파티는 정말 최고였다. 주위에는 상권이 없어서 살짝 아쉬웠지만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특히 마당에 있는 불을 쬔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고3 친구들에게 뭘 시키면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맙다. 특히나 내가 주로 사진을 찍어서 이런저런 포즈를 부탁했기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래도 웃으면서 잘 따라와 줘서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거 같다.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고3 친구들이랑 많이 못 친해져서 아쉽지만, 나중에 어딜 가서 만나면 친근하게 다가와서 인사해줬으면 좋겠다~

시흥주

춘천 여행 중 불을 피고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손을 쬔이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때가 되자 따뜻한 난로가 있는 천막으로 들어갔다. 바로 바비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불판 위에 차례로 버섯, 마늘, 양파, 고기, 김치를 올리고 파채와 곁들여 쌈에 싸먹었다. 진짜 너무 맛있었다... 지금도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는 의도치 않게 볶음밥 대결을 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우리 테이블 볶음밥이 제일 맛있다고 해서 나름 뿌듯했다. 라면으로 딱 마무리하고 잠깐의 쉬는 시간이 생겼다. 배도 부르고 조명으로 꾸며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불을 주위로 몇몇 친구들이 모여 앉았다. 그동안의 피로를 녹여주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김민수

첫 번째 날에 춘천에 도착하여 막국수를 먹어보았다. 평소에 내가 먹던 막국수와는 전혀 다른 맛을 가진 음식이었다. 흔히 먹던 막국수의 새콤달콤한 맛이 나지 않아 조금 실망하였다. 이후에 해피초원목장에 방문하여 여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였고, 한우버거를 만들어 먹었다. 해피초원목장에 뛰어다니던 소들을 보면서 이런 소들로 만든 버거라고 생각하고 한우버거를 먹으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으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유리로 된 길을 걸었다. 내가 생각한 것은 구름에 가까운 곳에서 걷는 것을 생각했는데 강 살짝 위에서 걷는 것을 보고 조금 실망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숙소에서 바비큐파티를 하며 친해지는 기회를 가졌다. 서로 장난을 치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두 번째 날에 김유정역에 방문하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방문하여 시와 창작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소설가나 창작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물을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인문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또한 닭갈비를 처음으로 춘천에서 먹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춘천에서 먹는 닭갈비라고 특별할 것 같았는데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친구들이랑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은종민

처음에는 정말 지루할 줄 알았다 인문학 여행이란 말만 듣고 지루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가보니까 재미가 있었다. 인문학 여행이란 말만 듣고 강의만 듣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첫 번째 날은 춘천의 관광 명소들을 갔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해피초원목장이다. 말 그대로 목장이었다. 진짜 양들이 뛰어다니고 동물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목장 이었다. 동물들 먹이 주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춘천 스카이워크이다 바닥이 유리이고 그 밑이 바로 소양강이라서 아찔한 장소였다 두번째 날에 간 곳은 김유정 문학촌이다. 거기서 첫 김유정의 대한 강의를 들었다

김유정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두번째로 간 곳은 김유정역이다 거기는 폐기차를 개조해서 관광지로 만든 곳이다.

거기서는 인문학 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지루했지만 듣다보니 어느 정도는 재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다 거기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그리고 세계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나름 재미가 있었다.

인문학 여행 '열아홉, 길 위의 꿈'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이효원

여행은 혼자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빛을 바라는 것 같다. 낯선 장소에 가서 함께 자고, 먹으며 숙식을 해결하다보면 긴 시간이 아님에도 어느새 정이 들어있다. 인문학과 여행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인문학적 요소를 여행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평소 일상생활을 하며 많은 인문학적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굳이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영표

1일차 :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탄 후 잠을 자고 나니 춘천을 도착했다. 바로 춘천에서 유명한 막국수와 수육, 감자전 등을 먹었다 내가 막국수의 맛을 몰랐던 건지 내 입맛에 별로 맞지는 않았다 하지만 같이 나온 수육, 감자전 등은 매우 맛있었다. 그 후에 해피초원목장을 가서 널뛰기, 그네,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많은 동물들이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였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이 있었는데, 먹이를 주는데 동물들이 너무 잘 먹고 귀여웠다. 그리고 포토존이 있다고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긴 했지만 산과 강이 어우러져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 그리고 내려와서 한우버거를 만들어 먹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국밥 한 그릇이 더 생각났다. 그 뒤엔 스카이워크를 가서 밀이 유리창인 다리를 걸어 다니면서 짜릿함 느꼈다. 그 후에 숙소로 도착해 짐을 풀고 숙소에서 주의할 점 등을 듣고 휴식시간을 가지며 숙소를 구경했는데 숙소가 무슨 웬만한 집들보다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저녁시간이 되고 바비큐 파티를 하였는데 고기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다 맛있었다.

2일차 : 아침에 조식을 먹기 위해 빨리 씻고 나왔는데 체크초코가 떨어져서 조금 아쉬웠다. 김유정역사체험을 하러갔다. 처음에 김유정이란 사람이 누군인지 몰라서 그런 것을 왜 배우나 했는데 배우고 나니 이런 역사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먹으러 가고 닭갈비에 깻잎을 넣어서 약간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깻잎의 향도 잘 안 나고 맛이 있고 볶음밥을 먹었는데 맛이 좋았다. 후식으로 초코라떼를 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엔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가서 재밌게 놀고 왔다.



마지막 이야기...

다음 2기 멤버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

후배들을 위한
진심어린 한마디!!



다음 2기 멤버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

춘천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열아홉, 길 위의 꿈'

서원제

마지막 10대를 인문학 여행으로 마무리하며
인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10대를
아름답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돈이 없지만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싶은
사람들이 오기 좋다. 춘천을 돌면서 지역
음식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숙소에서는
편한 분위기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때문에 다음으로 참가하는
친구들에게는 많이 외졌으면 좋겠다.

오우서

애들아 너희 10대의 마지막이다
추억 쌓을거리는 이 프로그램이 끝이다
너희가 돈이 많은거 아니면
공짜로 여행 보내주는 여기에서
추억 쌓고 가라
나도 처음엔 오기 싫었는데
막상 와보니 엔간 재밌당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010-0000-0000 로 전화 걸어라~

정영표

애들아 이제 추억 만들시간이 없다.
이제 연말에 친구들이랑 추억 쌓을
일은 이거밖에 없다.

손문규

참여를 망설인다면 고민하지말고 친구들
꼬셔서 가길바라는 마음이다.
진짜 개꿀잼;; 생각했던거 이상으로 재밌다.

이동현

You can do it

김재익

꼭 오면 좋겠어.^^

하상우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가면
재밌으니까 많이들 오세요~

은종민

편한옷을 입고 와야한다 따뜻하게
입고오자 겨울에 춘천은 많이 춥다.

